

KIA 김도영, 올시즌 KBO리그 MVP

득점상·장타율상 등
폼으며 사실상 3관왕
신인상은 김택연이 받아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한 KIA 김도영이 허구연 KBO 총재로부터 트로피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KBO리그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선 김도영(21·KIA타이거즈)이 최우수선수(MVP)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도영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솔뱅크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MVP 수상자로 호명됐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정규시즌 직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와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MVP 투표에서 김도영은 유효 투표수 101표 중 95표(득표율 94.05%)를 끌어담았다.

뛰어난 투구와 후방포 만장일치 수상도 기대됐지만, 아깝게 불발됐다. 역대 KBO리그에서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한 것은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 OB 베어스(현 두산) 박철순이 유일하다.

이번 시즌 20안타를 때려 단일 시즌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작성한 빅터 레이에스(롯데 자이언츠)가 3표로 뒤를 이었다.

김도영은 트로피와 함께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를 받았다. 차량가는 대략 9000만원 안팎이다.

KIA 소속 선수가 MVP를 수상한 것은 2017년 양현종 이후 7년 만이다.

KIA는 선동열(1986·1989·1990년), 김성한(1985·1988년), 이종범(1994년), 김상현(2009년), 윤석민(2011년), 양현종에 이어 10번째 정규시즌 MVP를 배출, 역대 최다 배출 구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이 9회로 뒤를 잇는다.

김도영은 "큰 시상식에서 MVP라는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 제가 이 자리에 올랄 수 있게 도와주신 이범호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하다. KIA라는 명문 구단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학창 시절 감독님들, 지지해주고 응원

해주는 가족들께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애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신인상의 영예는 김택연에게 돌아갔다.

프로야구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101표 중 93표(92.1%)를 획득한 김택연은 3표를 받은 2위 황영목(한화 이글스)을 여유롭게 제치고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을 차지했다.

김택연은 신인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을 거머쥐었다. MVP를 수상한 김도영은 득점상, 장

타율상까지 품으며 사실상 3관왕에 올랐다. 신기록을 쓴 득점 부문 뿐 아니라 장타율 부문에서도 0.647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46홈런을 날린 NC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홈런상을 품에 안았다.

승리상에서는 공동 수상자가 나왔다. 롯데(삼성)와 롯데(두산)가 나란히 15승으로 다승 공동 1위가 됐다. 국내 투수의 다승 1위는 2017년 KIA 양현종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KIA의 에이스로 활약한 제임스 네일은 평균자책점 2.53으로 이 부문 타이틀을 따냈다.

KIA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31세이브를 수확한 정해영이 구원왕에 등극했다.

38홀드를 수확한 SSG 베테랑 노경은은 역대 최고령 홀드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탈삼진상은 NC 외국인 투수 카일 하트(182개), 승률상은 KT 위즈 마무리 투수 박영현(0.833)에게 돌아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수비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투수 하트, 포수 박동원(LG), 1투수 오스틴, 2투수 김해성(키움 히어로즈), 3투수 허경민(KT), 유격수 박찬호(KIA), 좌익수 에레디아, 중견수 정수빈(두산), 우익수 홍창기(LG)가 수상

의 기쁨을 누렸다. 김해성과 허경민, 박찬호, 에레디아, 홍창기는 2년 연속 수비상 수상에 성공했다. /뉴시스

FIFA·K리그와 '축구철학' 공유

대한축구협회, 컨퍼런스 등 개최

대한축구협회가 지난주 국제축구연맹(FIFA), K리그와 협회해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18~22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호텔 등에서 4가지 행사를 열고 FIFA, K리그 관계자들과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논의했다.

18~29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FIFA 아카데미 시스템 프로젝트(ASP) 세미나에는 K리그, 2의 2개 팀 소속 유소년 지도자 등 80여 명이 FIFA 육성 방침을 지도받았다.

ASP는 FIFA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유소년 육성 강화 프로젝트다. 각국 유소년 아카데미의 역량을 강화해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팀에 더 많은 우수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FIFA는 ASP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있어 한국을 선두 주자로 선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내년까지 모든 K리그, 2 구단 유소년 팀을 대상으로 FIFA의 전문 기술들이 유소년 육성과 경영, 재능 발굴 및 개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통해 최신 데이터를 전달한다.

특히 FIFA에서 선정한 3개 우수 엘리트 아카데미(울산HD, 수원 삼성, FC서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이다. 19일에는 고양 국제 청소년 문화 센터에서 현장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2024 지도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남녀 U-17 대표팀을 이끄는 백기태, 김은정 감독과 협회 전임지도자, 지도자 강사들이 연사로 나서 연령별 대표팀이 참가한 대회를 리뷰하고 국내 대회와 비교 분석했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다시 소노캄 호텔에서 협회 기술 관련 이해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엘리트 유스 코치 워크숍이 진행됐다.

또 협회 전임강사, 전임연구원, 전임지도자, 전력분석관, 피지컬코치가 중심이 된 '하이 퍼포먼스 치카 워크숍'이 진행됐다.

두 행사에서는 지난 6월 발표된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의 세부 내용에 대한 공유 및 현장에서의 발전, 적용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뉴시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재차 3선 출마 의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3선 도전 승인



육회 또는 회원단체 등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같은 기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체육회 비상임 임원인 이 회장은 가한을 사할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를 통해 수장에 오른 이 회장은 올해 말로 두 번째 임기가 만료된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여부는 체육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 회장은 이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 점검 결과 비위행위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점검단이 결과를 발표한 후 문체부는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져본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해 결말들은 사라진 상황이다.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지난 13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 회장은 "3선 도전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그만두고 물러서서 내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해왔는데 경기단체, 시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 이틀 동안이며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2300여명의 투표인단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감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뉴시스

전북현대, 28일 AFC 챔스 TWO 예선 5차전

내달 1·8일 승강 플레이오프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가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TWO(이하 ACLT) 최강자의 면모를 지킨다.

전북현대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다이내믹 세부FC와 ACLT 조별 예선 5차전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다.

전북현대는 지난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치른 원정경기에서 6대0으로 세부FC를 꺾으며 한 수 우위의 경기력과 득점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이번 홈에서 열리는 5차전도 '영건'들의 빠른 속도와 패기 넘치는 활동량을 앞세워 세부FC에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현대는 이날 세부FC와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승점 12점을 획득하며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다.

전북현대는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승리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득점을 통해 팬들에게 화끈한 공격 축구로 기분 좋은 승리를 선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세부FC는 이번 ACLT 대회 4차전을 치른 현재 18실점으로 가장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어 전북현대 공격진의 활약이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현대는 다가오는 12월 1일과 8일, 올 시즌 K리그 잔류의 향방을 가르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예정돼 있다. /김재훈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받고!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까지!

답례품 QR

1.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 16.5 세액공제)

2. 기부금의 30%금액의 답례품 증정

3. 지역경제 활성화